- 북한 유형 생활의 상황 시 -

구름아 너 무엇을 노래하느냐?

옥사덕 수용소에 서린 탄원의 노래



< 들어가는 말 >

크리소스토마 슈미트 수녀님(Sr. Chrysostoma Schmidt. OSB.; 1892. 2.15.~ 1971. 9.12.)은 일제 강점기였던 1925년 11월 21일 독일의 툿찡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에서 우리나라(당시 조선)에 처음 파견 된 네 분의 수녀님 중 한분이셨다.

수녀님은 원산에 도착하여 몇 주간 되지 않았을 때부터 선교 활동을 시작하셨다. 원산 거리에 방황하는 굶주린 어린이들을 모아 「천주교 요리강령」책을 들고다니며, 스스로도 어린이들과 함께 한글을 익히고 또 가르치는, 문맹 퇴치 운동도 겸해서 말씀을 전하는 열성적인 분이셨다. 수녀님은 뛰어난 음악 교사였으며, 고운 외모 때문에 '마돈나'라는 별명으로 불리셨다고 한다.

해방 이후 공산 정권하에 들어간 원산 지역이 본원이었던 수녀원은 북한의 종교 탄압으로 수난을 겪게 되었다. 1949년 5월 11일 끝내 한국인 수녀가족들은 약 한주간의 감옥 생활 후 강제로 해산되고, 20여명의 서양인 수녀가족들은 85일간의 감옥생활을 한 후, 1949년 8우러부터 1954년 1월 독일로 송환되기까지 자강도 어 4년 10개월여 동안자강도 전천리(일명 옥사덕)수용소에 수감되어 굶주림속에 강제노동을 해야 했다.

이 시집의 시들은, 수녀회 크리소스토마 슈미트 수녀님이 옥사덕 수용소에서 지내던 동안 썼던 북한 유형생활의 상황시다.

크리소스토마 수녀님은 공산당들이 피우다 버린 담배꽁초를 뜯은 작은 종이쪽지에 적어서 정리하여 공산당들의 눈에 뜨이지 않도록 숨겨 두었다. 이윽고 강제노동을 했던 수용소에서 본국 송환될 때, 아르사시아 에이그넬 수녀님(Sr. Arsatia Aigner. OSB. 安順德 ;1917. 2. 2.~2002. 7. 3.)이 크리소스토마 수녀님의 시 모두를 모아, 수용소 공산당 감독의 눈을 피해가며, 자신의 상의 양 어깨 부분에 표 나지 않게 차곡차곡 집어넣고 꿰맨 후, 그 위에 겉 옷을 입어 감추었다. 혹시 본국 송환 때 몸 조사를 받게 되어 쪽지가 발견될까봐 전전긍긍하였지만, 다행히 송환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어떤 조사도 받지 않아 시 원문 쪽지 모두를 고스란히 본국으로 가져갈 수 있었다.

이렇게 가져간 시 원문 쪽지들을 크리소스토마 수녀님이 다시 타자로 정서하여 내용별로 정리해 두었다. 그러나 크리소스토마 수녀님의 시는 겔트루드 원장

수녀님과는 달리¹⁾ 자신의 시를 본국인 독일에서 출간하지 못했다. 다만 이후 수 녀님이 한국으로 재 파견 되셨을 때 정서한 독일어 원본을 대구로 가져 오셨다.

1952년 다행히 남하에 성공한 한국인 수녀가족들이 대구에서 다시 수도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1956년 5월 7일 겔트루드 링크 수녀님과 함께 크리소스토마수녀님도 선교지 한국 남한으로 돌아오셨다. 그러나 1970년 대 초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불안해지고 전쟁 발발의 위험이 고조되었다. 북한의 수용소에서도 수녀가족 중 가장 연장자였던 수녀님은 강제노동생활로 인해 이미 많이 허약한 상태였고, 한국의 정치상황과 맞물려 건강이 더욱 악회되어 본국으로 되돌아가실수 밖에 없었다. 이후 한국을 못 내 그리워하시며 종전 이후 가난한 한국의 피난민들을 위해 털실을 모아 모자와 장갑 등을 떠서 보내는 삶으로 일관하시다가끝내 시집 출간을 못 보시고 선종하셨다.

그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이 시의 원문은 독일인 벨트비나 체사르 수녀님(Sr. Bertwina Caesar. OSB. 蔡仁淑.; 1914. 8.12.~)께서 간직하고 계셨다. 이를 알게 된 연혁실 책임자인 나는 크리소스토마 수녀님의 시가 우리말로 번역하여 우리 공동체 뿐만 아니라 남북한 우리 국민 모두와 아울러 독일 국민들에게도 읽혀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2005년, 김 영자 젤트루드 수녀님(金英子, Sr. Gertrud Kim. OSB; 대구 수녀원의 제 9대 원장)의 원장 재임 때, 이를 정 하순 가밀라 수녀님(鄭夏順, Sr. Camila. OSB)에게 번역을 의뢰하셨다. 이 후 내가 한국인 수녀님들의 수난기를 정리하던 중, 이 시의 원본과 번역본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렇듯이 바라던 크리소스토마 수녀님의 시집이 한국인과 독일 인들에게 읽히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크리소스토마 수녀님의 시 원문과 번역문을 '원산수녀님들의 수난기 「어둠에서 은총의 빛을 따라」에 실어 한권의 책으로 출간하고자하는 나에게 최 순자 루멘 원장 수녀님(崔順子 Sr. Lumen Choi. OSB; 대구 수녀원 제 10대 원장)께서 "수난 기는 그대로 한권의 책으로 발간하고, 크리소스토마 수녀님의 시는 따로 한 권의 시집으로 발간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어 따로 한권의 시집으로 발간하게 되었다.

¹⁾ 링크 수념님(Sr. Gertrud Link. OSB, 林仁順; 1908.1.20.~1999.3.27.)은 수난 당시 원산 수녀원의 제 4대 원장이었다. 수녀님의 독일어 판 시집은 1954년「SEELE DU, IN STURM UND NACHT」란 제목의 독일어 판 시집으로 에 출간 되었다. 한국어 판 시집은 1980년 <암흑과 폭풍속의 너 영혼아!〉란 제목으로 양 요순 마리 비안네 수녀(梁天順. Sr. M. Vianne yang. OSB.)이 옮겨 분도 출판사에서 출판했다.

우리말로 번역된 시를 수정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많이 흘렸다. 왜 이런 무죄한 분들을 그렇듯이 비참하게 탄압했는가? 읽어가며 너무나 아린 시어詩語들이 가슴 을 에이는 듯 아팠다.

그런데 시의 번역이란 그리 수월하지 않은 터라 우리 한국인들만의 번역으로는 그 뜻의 이해가 수월하지 않았다. 행여 원작자 뜻이 조금이라도 잘못 옮겨질까 조심스러워 왜관 수도원의 헨네켄 신부님(P. Bartholomaus Henneken. OSB. 玄益絃)께 의뢰했다. 신부님께서는 기쁘게 허락하시며, 시의 원문과 앞서 정 가밀라 수녀님이 1차 번역한 시문을 심혈을 기울여 몇 차례씩 거듭하여 재수정해주셨다. 이렇게 옮겨진 번역문을 우리말 시어詩語로 고르고 다듬어서 한권의 시집을 만드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 참으로 조심스럽고 힘겨운 작업이었다.

시집을 발간하는데 필요한 삽화는 김정숙 알비나 수녀님(金貞淑. Sr.Albina Kim.OSB)이 수고하셨다.

이 모든 작업을 마음을 다하여 도와주신 분들께 하느님의 크신 강복을 빌며, 아울러 앞으로는 우리나라에, 더 나아가 온 세계에서 이념의 갈등 때문에 무죄한 이들이 이렇듯 참담한 고통을 겪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기도드린다.

또한 크리소스토마 수녀님은 험난했던 수용소 삶의 비탄의 노래가 한권의 시집으로 출간된 것을 세상에서는 끝내보시지 못하고 떠나셨지만 하늘나라에서 대한민국의 평화통일과 우리 수녀회가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원산에서 중지된 선교활동을 할 수 있게 빌어주시고, 길이 아름답고 복된 많은 시를 만들어 읊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 펴낸 날은 수녀님께서 서양인 수도자들과 함께 60년 전 본국 송환되신 날인 2014년 1월 24일을 택했음을 밝혀둔다.

이 정순 (李 貞順) 베로니가 수녀

차례

- I. <옥사덕> 수용소에 수용 1949.~1950.10.
 - I-1 고향생각1
 - I-2 고향생각2
 - I-3 그리움
 - I-4 길들
 - I-5 단념
 - I-6 강제 노동 수용소
 - I-7 가을 목장의 소들
 - I-8 저녁에
- Ⅱ. 혹한 속 만주로 피란 1950.10.29.~1951.1.16.
 - Ⅱ-1 피란길
 - Ⅱ-2 관문리
 - Ⅱ-3 크누트 아베나스 신부
 - Ⅱ-4 관문리의 밤
 - Ⅱ-5 대림절

- Ⅱ-6 1950년 성탄
- Ⅱ-7 노래와 고통
- Ⅱ-8 그리스도께서 승리 하신다
- Ⅱ-9 주님 원하시는 대로
- Ⅱ-10 흑사병
- Ⅱ-11 고발
- Ⅱ-12 카이사르에게 인사
- Ⅱ-13 만주에서 한국인 포로들과 함께
- Ⅲ. 재연되는 옥사덕 수용소의 삶 1951.~1953.
 - Ⅲ-1 귀향
 - Ⅱ-2 고통
 - Ⅱ-3 고통으로 가득 찬 대림절
 - Ⅱ-4 다시는 안된다
 - Ⅱ-5 초가을
 - Ⅱ-6 가을의 그리움

Ⅳ. 순교자를 기리며 1950.~1952.

W-1 광산에서의 노동

IV-2 로마의 순교자들

IV-3 한국의 순교자들

IV-4 현대의 순교자들

IV-5 각오

V. 본국 송환과 여운

V-1 해방

V-2 홀로

V-3 옥사덕에서 숨진 수도자

V-4 화를 입을 것이다

※ 독일어 원문

※ 부록

크리소스토마 수녀님의 선교 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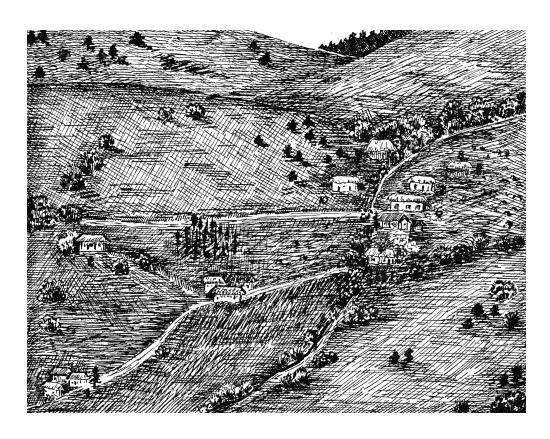


크리소스토마 슈미트 수녀(1925) Schwester Chrysostoma Schmidt. OSB(1925.)

Ι

<옥사덕> 수용소에 수용

자강도 전천군 별하면 쌍방리 일명 옥사덕 1949.8.~1951.1.15



〈옥사덕〉 수용소(크리소스토마 슈미트 수녀의 그림)

I-1 고향 생각 1

1949년

드높이 솟아 있는 산 아름다운 계곡들 물결치는 들녘 힘차게 흐르는 시냇물 소리 그윽한 숲과 드넓게 넘쳐흐르는 강물 바쁜 도시들과 친절한 마을들

내 고향아! 너는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내 고향아! 다시는 너를 볼 수 없게 되다니…….

영원히 사라지고 마는구나!

I-2 고향 생각 2

1949년

한국의 영혼아 우리는 그대가 갇힌 것을 보았노라 이교의 망상으로 묶여 뜻 없는 현실주의에 사로잡힌 것을 그러나 진리를 향한 작은 불꽃 하나 지니고 신비롭게 하느님을 그리워하는 구나! 우리는 그 불꽃을 밝은 불로 활활 타 오르게 하려고 찾아왔었노라

우리는 기도하며 희생하였노라 고통스러웠지만 너를 얻으려고 사랑의 삶을 폈었노라 그러나 너는 우리를 뒤로하고 자유보다 사슬을 더 사랑했구나!

우리는 사랑했던 모든 이들을 잃었고 두 번째 고향도 잃었노라

슬픔에 잠겨 가득 찬 동경으로 너를 생각한다. 매 순간 넘치는 그리움을 안고 고통과 두려움으로 떨며 다시는 너에게 돌아갈 수 없는 우리에겐 모든 것이 지나갔고 영원히 사라지나보다

오. 그리운 두 번째 고향 한국이여!



고향생각

I-3 그리움

1950년

파아란 하늘에 두둥실 떠 있는 아름다운 구름아! 너희와 함께 마음속에서 울려오는 소리가 신비스런 그리움으로 흐른다. 구름아, 너 무엇을 노래하느냐?

온갖 꽃들이 오색으로 어우러져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찬란함으로 피어나는구나! 그 안에 흐르는 곱고 가슴 아린 노래가 내 마음을 슬프게 만드는구나! 꽃들아, 너희는 무엇을 노래하느냐?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시내는 푸른 들판을 지나 졸졸 흐르며 속삭이고 한 번도 머물지 못하고 들녘을 지나가느라 서두르며 드넓은 푸른 바다를 향하여 이어서 흐르는구나! 작은 시내야, 너 무엇을 노래하느냐? 산의 원시림에서 불어오는 바람아! 웅장한 오르간의 바람인양 사나운 군대가 달려가듯이 숨 막혀 마음을 무겁게 하면서 바람아, 너 무엇을 노래하느냐?

사람아, 무엇을 물어보느냐? 마음속으로 깊이 귀 기울여 들어 보렴 우리의 울림과 우리의 노래들을 신비스럽게 울리는 이 노래는 네 영혼의 노래이며 네 그리움의 교향곡이란다.

I-4 길들

1950년

원을 그린 듯 둘러 싼 산들은 우리를 지키고 있다 천개의 산들과 언덕들 산마다 하나의 새로운 빗장 우리를 가두는 자물쇠여라.

길들은 산에서부터 계곡에 따라 도시로 간다. 한 번도 나의 발이 다 닿을 수 없는 길 다시는 평지를 못 디디겠지 그곳에는 자유가 있으니까!

하나의 길은 위에 있는 묘지로 가는 길 또 한 길은 마을로 내려가는 길이라네

언젠가 내가 밟게 될 길은 두 길 중 어느 길일까 자유에로의 길인가 무덤으로 가는 길인가?

I-5 단념

1950년

나무들아, 새댁과 같이 아름다움으로 넘치는 자라거라! 황금 빛나는 가을을 향해 피어나라! 이제부터 너희 익어가는 열매들을 못 보겠고 영원히 너희 축복을 즐기지도 못할 것이다.

씨 뿌리는 이여 풍성한 열매를 거두도록 신뢰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려주오 즐겁게 창고를 곡식으로 가득 채울 때 나는 차디찬 땅속에 누워 있겠지…….

젊은이들아, 계획을 세워라 그대 힘센 이들아 일하라 앞으로 다가 올 일을 준비 하여라 언젠가 고향에서 일하게 되면 산 위의 고요한 무덤들을 기억해다오.

I-6 강제 노동 수용소

1950년

종소리가 들리는가?
"형제여 일어나라"
오랜 시간 뜨거운 들녘에서
강제 노동하는
하루 일과는 어렵고도 힘겹구나.

저녁이 되면 죽은 듯이 지쳐 잠들고 죽을 것같이 피로하지만 다시 일어나야 한단다.

종일토록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쉴 틈 없는 일 새벽부터 어둠이 짙어질 때까지 욕설과 책망뿐 그들은 우리를 일하는 짐승처럼 밭으로 몰아내며 독촉하고 끝없이 괴롭힌다.

우리의 노래는 이미 사라졌고 웃음이 사라진 지도 오래다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굶주림에 허덕이며 돼지들의 먹이를 기꺼이 먹는다. 우리는 희망을 잃고 오직 끝없이 고통을 당할 뿐이다 죽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리라.

저 위 산자락에 있는 여섯 무덤 그대와 내가 그곳에 묻힐 차례는 언제 올 것인가?

곤궁은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우리를 삼켜 버리기에
우리는 소리친다
"주님!
저희에게 자유를 주소서"라고…….

I-7 가을 목장의 소들

1950년

하늘은 높이 아주 드높이 내 위에 비단처럼 펼쳐져 있다.

안개는 저 멀리 이리저리 흩어져 골짜기와 계곡은 우유 빛 바다 같다 이 위에는 해가 황금빛으로 눈부시며 산 둘레는 반짝이고 있다.

제비는 뒤늦게 초조히 날며 지저귄다. 들비둘기는 공중을 떠돌며 구구 우는 소리를 내고 매 한 마리가 드높이 떠서 보기 좋게 돌고 있다.

멀리서 새 한 마리가 높은 소리로 지저귄다.
저편 가까이 작은 낙엽송 숲에는 까치들이 까 악 까 악 울고 가끔 딱따구리의 소리가 들리다가 고요해진다. 풀숲에는 다만 모기들이 웽웽거리고 매미는 단조로운 음으로 지루하게 노래를 부른다.

산에는 아직 짙은 녹색으로 솔숲이 으슥하다 언덕의 떡갈나무들은 노랗게 물들어 빛난다. 옥수수 밭은 누렇게 변했고 계곡을 따라 말끔한 벼이삭이 양탄자를 깐 것처럼 보인다.

아마도 저 아래는 추수의 마무리를 하는 듯 볏단을 창고에 잘 쌓아둔 다음 들녘은 아무것도 없는 벌판이 되어있다.

그러나 나의 눈은 목장 주변의 알록달록한 색깔을 보는 것이 즐겁다. 보랏빛 엉겅퀴 옆에 파란 나비들이 서로 잡으려 하고, 갈색 나비들이 황금빛 꽃에서 팔랑거리며 끈끈한 갈대의 꽃들이 화려하게 휘날린다.

작은 꿀벌 한 마리는 붉은 카네이션에서 꿀을 가져 온다.

해아릴 수 없는 풀들이 은빛 줄기를 휘날린다. 남자주빛 과꽃들이 사방에 피어있고 투구 꽃과 짙은 용담이 피고 있다.

미풍에 살랑이며 고사리가 움직인다. 덤불 속에 있는 나무달기의 잎들이 적갈색으로 변한다. 붉은빛 들 넝쿨 포도는 햇살을 쏟고 있다.

가을아, 죽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자신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느냐? 너의 화려함은 슬픈 이별이던가?

I-8 저녁에

1950년

늦은 저녁나절 이우는 빛 속에 태양은 황금빛으로 이글거리는데 벌서던 사람들이 돌아온다. 얼마나 피곤하고 고달플까!

열 시간, 열두 시간의 끔직한 노동 후에 절뚝거리며 돌아온다. 허리는 굽어 있고 머리는 깊숙이 처져있으니, 그들은 얼마나 지치고 고달플까!

산 둘레에 번져있는 황혼의 아름다움! 들녘은 찬란하게 빛나건만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도 들어오지 않는다. 그처럼 지치고 고달플 뿐이다.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사라지고 농담도 웃음도 노래도 들리지 않는다. 기쁨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그처럼 지치고 고달플 뿐이다. 젊은 감독은 건강하고 강인하다.
그는 마지막 걸음까지
그들을 재촉하며 몰아 부친다
그들은 그의 욕설을
마치 꿈속에서처럼 아련히 듣는다.
그처럼 지치고 고달플 뿐이다.

찢어진 옷과 넝마 같은 신발들! 포로들의 대열이 지나가는데 백발의 노인처럼 몸과 마음은 무너졌으니 그들은 얼마나 지치고 고달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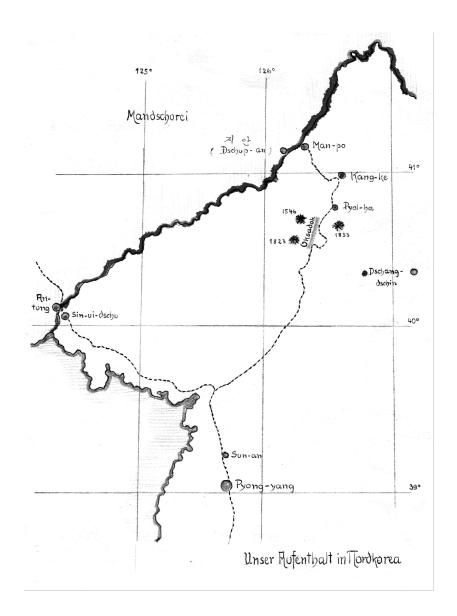
그러면서도 각자의 가슴에는 자유를 향한 인간 존엄의 그리움이 푸른 꽃처럼 피어나곤 한다. 그들은 너무도 지치고 고달플 뿐이다.

\prod

혹한 속 만주로 피란

1950.10.29.~1951.1.16

* 다음 13편의 시는 수도 가족들의 귀양살이 중 가장 어려운 때에, 미국인들을 피하고 압록강 강변 만포에서 만주까지 갔다가 다시 국경선 관문리 수용소로 되 돌아오며 쓴 시다.



수용소에서 만주로 크리소스토마 슈미트 수녀의 그림

Ⅱ-1 피란길

1950년 11월

스산한 가을밤 아주 조급하게 서두르는 피란길 쉴 틈 없이 다만 앞으로만 가야한다 우리는 길도 목표도 알지 못하고 몰아붙이는 이들의 뜻대로 서둘러 가고 있을 뿐이다. 오직 앞으로 앞으로. 무작정 앞으로만 가란다.

우리는 숨이 차고 힘이 다 빠져가고 있다. 이처럼 작은 짐이 어찌 이다지 무거울까! 우리는 실의에 잠겨 앞서가는 이의 발걸음을 헤아린다. 머뭇거리는 이는 희망이 없다 오직 앞으로 앞으로만 함께 걸어야한다.

우리는 서둘러 지나가면서 불타고 있는 집들의 참혹한 광경을 볼 뿐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보기 좋은 마을이 있던 자리에 이제는 허물어진 집들 연기 자욱한 흔적만 남았다 낮에 폭격 맞은 자리에서 폭탄이 떨어졌던 자국의 크나큰 분화구를 본다. 낮에 폭격 맞은 자리에서 노인들과 아낙네들은 수리작업을 하고 있다. 파고 찍으며 모아놓은 모래 자루를 나른다. 차가운 밤, 힘든 강제 노동 중에 다리와 길을 고치고 있다.

피난민들의 무리는 끝없이 이어지고 우리 앞에 옆에 뒤에서 따라온다. 겁에 질려 불안한 가운데 서두르며 그들이 지닌 짐들로 힘겨워한다. 시골길은 파도가 센 바다와도 같다.

자동차들은 이어서 밀려오고, 무겁고 넓은 소달구지도 보인다. 사나운 울부짖음 시끄러운 명령 고함소리. 작은 가까이 진격해 오는데 길은 아직 멀기만 하다 밤이 있는 한 오로지 앞으로, 앞으로 가야한다.

갑자기 찾아든 어두움 속에 또 다른 전투의 모습 공산군들이 빠른 행진으로 밀려온다. 그 사이에는 기마대도 길을 찾고 있다. 차들은 막을 길 없이 앞으로 밀고 나간다. 점차들은 대포를 싣고 오는데 차에 실린 무기들은 드높이 쌓여있다 크나큰 부대들이 점점 더 많이 큰 무리로 우리의 맞은편에서 몰려와 마치 거센 파도처럼 다가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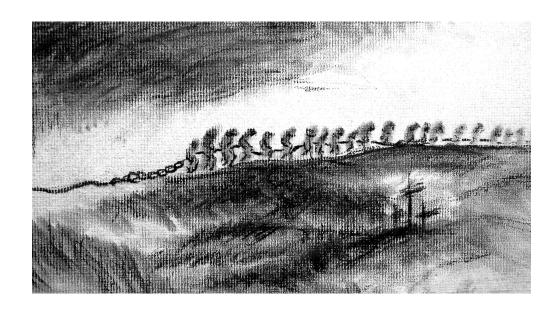
이어서 거의 끝없는 대열의 병참 부대들, 막대기를 어깨에 메고 흙빛이 되어 지나간다. 도깨비들처럼 긴 행렬을 이루며 박자에 맞춰 끝없이 무거운 짐들을 나른다.

얼마나 낯선 모습이며 얼마나 낯선 얼굴들인가! 우리는 떠오르는 달빛에 그들의 모습을 희미하게 바라보고 발을 질질 끌며 길가로 계속 걷는다.

이제야 우리는 피난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었고 붉은 땅 중공의 국경선을 바라보고 있다.

앞으로 서두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두렵다. 우리에게 욕하는 소리 악의에 찬 시선을 만난다. 증오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며 사라진다.

하지만 어디에서나 우리에게 증오를 보일 뿐인데 사랑은 우리를 고향으로 가게 해 줄 수 있을까?



죽음의 행진

Ⅱ-2 관문리

1950년

죽음아,

'너의 축제와 같은 권위와 장엄한 아름다움과 위대함'에 대한 많은 이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은 네 앞에선 다 지나간다.

죽음아.

나는 너를 가장 더러운 옷을 입고 매일하는 그 힘겨운 일 가운데서 너의 온갖 흉측함을 보았다.

네가 그처럼 자주 희생자를 요구한다면 너를 장식하기 위한 시간이 없다. 찬란한 위로와 화려함을 빼놓고 네 할 일은 서슴없이 하기에

*** ***

"토굴 입구 그 어두운 곳에 무엇이 있는가?" "사람?" "오, 아니 한 죽은 이의 시신이 있으니 조심해라." 그렇다. 그는 조금 전 밤중에 죽었다. 어제 한 사람이 죽었듯이 그저께도 그랬지……. 그들은 굶어서 얼어 죽었다. "가장 누추한 곳에 그를 눕혀 놓는단 말인가? 그를 위한 자리가 아무데도 없었단 말인가?"

토굴속의 관습은 그랬다. 죽은 이는 그의 권리를 잃었다. 이미 다른 이가 그의 자리를 차지했기에 살아 숨 쉬는 이들은 누울 공간이 없으니 밤이나 낮이나 늘 비좁다. 이렇게 혼잡한 곳에서 죽은 이들을 위한 자리를 어찌 찾으랴!

다 해진 셔츠, 다 해진 바지, 이처럼 헐벗은 불쌍한 이를 어떻게 하는가? 더러운 천 조각이 그의 얼굴에 덮였으니 죽은 이를 위해 이것밖에 할 수 없단 말인가?

그가 마지막 한숨을 겨우 내쉴 때 우리는 그의 옷을 나눈다. 죽은 이는 다행히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살아 있는 우리들은 혹독한 추위에 떨고 있다.

그는 우리의 형제였는데 어찌하여 슬픔이 이렇게 적은가?!

허기와 추위와 곤궁이 우리를 딱딱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은 냉혹해지고 있다. 살아 있는 우리들도 아사지경으로 그처럼 곧 얼어서 누워 있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는 격렬한 투쟁을 하고 있다. 하찮은 무기로 죽음을 대항하며 싸우고 있는 것이다. 크리소스토마 슈미트 수녀님의 시 원 본과 번역 본

두려움과 이기심이 사랑으로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궁핍을 더욱 크게 만든다.

각자 자신을 위해 전력을 다해 투쟁하고 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고상한 '나'를 잃어가고 있다.

우리는 죽은 이들의 보잘것없는 물품을 가지고 다투는데, 그것들은 우리를 조금이나마 따스하게 하기 때문이다.

비록 물같이 묽어서 보잘것없는 먹거리건만 우리는 그의 마지막 죽 한 그릇을 두고 다투며 죽은 이가 미처 먹지 못한 것이 살아 있는 우리의 허기를 채우기 때문이다.

*** ***

불쌍하게 죽은 이를 얼마나 오랫동안 더러운 바닥에 아무렇게나 눕혀둘 작정인가? 죽음이 이처럼 자주 찾아오면 크게 마음을 쓰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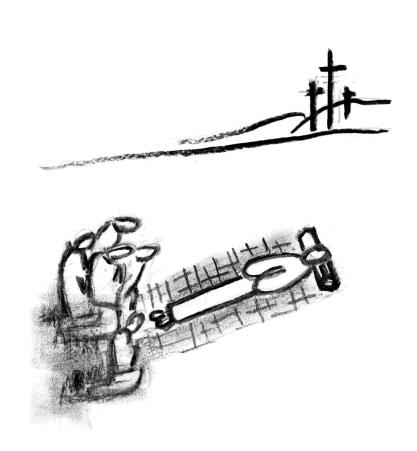
포로들은

아직 저녁이 되기 전에 와서 감시자들의 거친 욕설 가운데 죽은 이를 그냥 들고 나간다. 가파른 언덕, 민둥민둥한 들판 꽁꽁 얼어붙어 얼음같이 굳어버린 땅에 흙으로 덮어 개처럼 매장해 버린다 그 언덕엔 이름도 표지도 없다.

이 나라사람이나 독일 사람이나 벗이나 적이나 그 곳에는 평화로이 일치하여 누워있다.

우리는 우리의 죽은 이들이 어디에서 안식하는지 모르며 한 번도 그들에게 사랑의 표현을 할 수 가 없다.

비록 그들에게 합당한 무덤이 주어지지 않았어도 단 한가지 우리가 아는 것은 그들은 차라리 평화 중에 쉬고 있으며 목숨 바친 나라의 국경에 묻혀있다는 것이다.



나무토막 베개로...

Ⅱ-3 크누트 아베나스 신부

1950년 11월 6일(만포에서)

그가 세상에서 빛을 보았을 때 그의 몫은 빛나고 고급스러운 것이었다 그는 아마도 왕관을 수놓은 베개에 누워있었을 것이다. 세상이 그의 품에 안겨 준 것은 부귀와 영화였다.

그러나 그는 수도자가 되어 가난하게 살았으며 우리가 그의 죽음을 보았을 때는 더욱더 가난했다. 피난길은 피곤으로 지친 그를 죽게 했지만 그는 끝까지 씩씩하게 견디었다. 빈 감방 안에서
그를 위해 자리 하나를 빨리 차렸다.
생 나무토막이
그의 머리를 바치고 있었을 뿐
그 외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빼앗겼으며
관도 덮개도 초불도 빛도 없이
누어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고요한 평화로움이 있었다.

집 뒷산 위에 한 밤중, 그를 위한 무덤을 팠다 수용소 뒤 압록강 가에 그 무덤은 다른 낯선 무덤과 같았다.²⁾ 반짝이며 물줄기는 흐르고 저 건너의 산은 만주의 산이란다.

²⁾ 많은 눈이 내렸고 땅이 얼어서 땅을 파기엔 불가능한 터라 눈을 퍼 헤쳐 땅위만 조금 파고 눈 속에 어설프게 묻었다고 한다.



50명을 작은 감방에...

Ⅱ-4 관문리의 밤

1950년

비좁은 판자 집 공기도 빛도 없는 곳에 오십 명을 한꺼번에 몰아넣었다 갇힌 오십 명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다

다 해진 헌 옷을 기워 입고 아무런 보호막도 없이 얼음처럼 차가운 바람과 마주했다

몇 주간을 더러운 먼지로 뒤덮이고 추위에 떨며 꽁꽁 얼어 뻣뻣해져 이글어지고 까칠한 얼굴들이다

어두움에 굴속은 일찍 암흑이 되고 밤은 끝없이 길고도 길다 불쌍한 이들은 잠을 그리워하면서도 밤을 두려워한다

지치고 피곤한 늦은 밤 쉴 수 있기엔 이 자리가 너무나 비좁다 몸과 몸, 팔다리는 겹쳐져 볼품없이 빽빽하게 엉겨졌다 심장이 거의 멈출 듯 무서운 어두움이 조이고 있다 크리소스토마 슈미트 수녀님의 시 원 본과 번역 본

참혹한 곤궁 중에 미칠 것 같은 두려움이 가슴을 으깨듯 할퀴며 아직도 뛰고 있다 이제, 처참한 죽음이 나를 엄습한다.

아픔의 신음소리가 공간을 휩쓸고 간다. 숨 찬 한 사람이 힘겹게 공기를 마시려 애쓴다.

죽음에 가까워진 한 어르신은 꿈속에서 '어머니'를 부르신다.

어떤 이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지내면서 실의에 빠지게 된다.

여기 한 사람의 열병환자는 횡설수설하며 구석에서 조용히 흐느낀다.

밤은 모든 허상 ……. 배우의 분장과 칼의 가장도 벗겨낸다 자존심의 자세 용감한 말들도 어두운 밤에야 드러난다.

낮에는 ……. 용감하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밤이 되면 두려워하는 어린이가 되어 공포 때문에 쉬지도 잠들지도 못한다. 크리소스토마 슈미트 수녀님의 시 원 본과 번역 본

오십명의 우리들은 고통과 피로로 무르고 약하게 되었다 의기는 꺾이어 희망은 절망이 되었다 우리들은 가장 어려운 운명에 처해 있다. 누가 이 끝없는 괴로움을 견딜 수 있으랴?

납으로 만든 신을 신고 걷듯이 시간은 천천히 흐르는데 공포와 불안이 계속 불어난다. 이 밤이여, 결코 지나가지 않으려는가?

드디어 지붕의 구멍 난 곳으로 한 줄기 회색빛이 보이는구나! 가볍게 구원 된 기쁨으로 감사드리며 위를 바라본다. 날이 밝아오는가 보다!

새로운 날, 온통 수고와 고통의 날! 그 가운데서도 밖은 태양의 아름다움이 비치니 밤의 두려움은 가셨다!

Ⅱ-5 대림절

1950년

저희에게는 어두운 운명이 무겁게 짓누르고 있어 더 이상 견디기가 힘겹사와 그만큼 저희는 비탄에 찬 부르짖음을 주님께 올립니다.

치욕적인 노예의 속박이 저희를 무겁게 짓누르오니 모욕과 굴욕적인 이 종살이! 주님! 어서 빨리 오시어 저희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 주소서!

저희는 육신의 곤궁에서 주님을 부르오니 주님! 저희의 간청을 들어 주소서 저희는 지치고 병들어 괴로워하오니 이대로 망하게 버려두지 마시옵소서.

저희는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사오며 더위와 추위에 지쳐 죽어가오니 주님! 어서 오시어 해방시켜주시고 저희들을 살 수 있게 해주소서. 저희 영혼은 이렇듯 깊은 고통의 도가니에 파묻혀 핍진하고 병들고 실의에 빠져 있사오니 주님! 아직 희망이란 것이 있을 수 있겠는지요?

이 어두운 밤은 죄의 벌이옵니까? 이 상처는 하느님께서 시는 것입니까? 오소서 주님!

어서 오시어 저희를 해방시켜 주시고 저희의 영혼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소서!

주님, 오소서! 고통을 안고 기다리는 저희를 잊으셨나이까?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저희를, 더 이상 울지 않도록 이 고통스런 밤을 없애주시고 주님! 어서 오시어 저희에게도 성탄의 밤을 비추어주소서.

Ⅱ-6 1950년의 성탄

1950년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곳 어디에서나 오늘은 기쁨에 넘쳐 '그리스도 탄생 하셨네.' 노래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품 안에서 저희에게도 성탄절이 있을지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저희는 추위에 떨며 굶주림에 허덕입니다. 너무 더러워서 스스로를 보며 구역질합니다. 저 구석에는 의혹과 지겨움이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고 하지만 저희는 어두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고 하지만 저희는 기쁨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지쳐있습니다. 그래도 이 말은 저희의 유일한 희망이며 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 우리를 위해서도……. 어기예수님! 저희들을 살리고 해방시켜주소서! 아기예수를 위하여 빛이 들게 하소서!

Ⅱ-7 노래와 고통

1950년

내 가슴에 노래 한곡이 잠들어 있건만 고통이 조심스레 덮어버렸노라 하지만 나도 모르게 잠 속에서 고요히 노래가 흘러나오는구나!

그러나 고통은 노래하면 더욱 슬퍼진다. "침묵하고 고요히 자려무나 작은 노래여! 네 안에 그리움만 있으니 나의 아픈 마음이 젖어든다."

고통은

공연히 방황하고 수고한다. 사람의 가슴에서 나오는 것 중에 고통 속에서 우러나는 노래 보다 더 큰 감동을 주는 것이 없다.

Ⅱ-8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는 미워하든 배가 고프는 궁핍하든 우리의 사업이 망하든 그리스도의 나라는 늘 존재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시고 다스리시며 언제나 명령하신다.

감시자들이

우리를 노예로 취급하든 우리들의 처지가 영원히 안 바뀌든 우리가 순교자로서 영광스럽게 죽든 가난과 결핍 속에서 망하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다스리시며 언제나 명령하신다.

우리의 운명이 보잘것없이 되더라도 이 땅 위에서 행복하든 불행하든, 그리스도의 투사가 굴복하든, 마지막 날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이끄시며 언제나 다스리실 것이다.

Ⅱ-9 주님 원하시는 대로

저는

주님의 씨 뿌리는 몫을 하고 이 땅위에 주님의 말씀을 심고 싶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스스로 밭을 가시고 저를 밭에 씨로 뿌리셨습니다.

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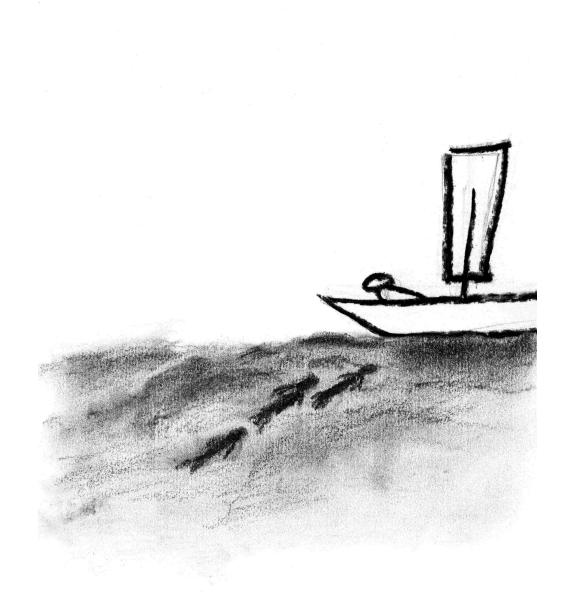
주님의 포도밭에 농부로 일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저는 포도송이가 되었고 저의 피는 고통의 압착기에서 짜내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가 되고 주님의 증거자가 되고 싶었지만 원수들이 주님의 양떼를 쫓아버렸음으로 하는 일없이 십자가에 붙잡혔습니다.

주님은

저의 예물을 원치 않으시고 희생을 원하셨습니다 하오나 주님! 저의 마음을 완전히 고요하게 해 주소서 포도송이로, 씨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시신을 바다에 내려 놓으며...

Ⅱ-10 흑사병

1950년

배 안에서 흑사병이 생겼다. 더구나 우리가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있으며 이미 우리 중에 세 명은 바다에 내려놓았다. 바닥은 없고 젖었으며 아무도 모르는 무덤! 하느님, 자비를 베푸소서!

운전대에 서 있는 죽음, 그 옆에는 전율. '어찌 그리 창백한가? 곤궁 중에 웬 한숨인가? 내게 죽음을 가져오는 너는 내게서 물러가라! 나는 너를 바라보지 않으련다.'

돛은 힘없이 돛대에 걸려있고 아무도 이를 걷어 놓는 이가 없구나. 요리사는 죽었고 부엌은 비어 있다. "빵을 달라, 너는 더 이상 쓸모가 없겠구나. 너를 곧 바다에 던질 것이기에."

흑사병이 배에 번지고 갑판에 굶주림이 마음을 굳어버리게 한다. 무엇보다도 나는 살고 싶고 나를 살리고 싶다 이 지옥과 같은 항해에서 사람마다 자신을 위한 싸움을 한다. 흑사병과 죽음 두려움과 전율은 증오와 망상을 일으킨다. 죽은 이들은 죽은 대로 버려져있어 쥐들은 끔찍한 짓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무도 만지지 않는다.

아침에 우리가 남 몰래 인원을 헤아려본다 이제 우리가 겨우 열 명만 남았다 선장은 없고 갑판원도 보이지 않는다 젊은이가 거기서 죽어가고 있다 선장은 이미 죽었다.

죽음이

깊은 바다에 키를 잡고 있고 항구나 육지가 보이지 않는다. 팔 밑에 그 아픔은 무엇인가? 나도 흑사병에 점염되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오!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나는 죽은 이들의 배에서 홀로 죽는다.

오늘

그 어느 사제도 나와 함께하지 않았다 주 하느님! 주님의 손에 저의 몸과 불쌍한 영혼을 맡기나이다. 잘 있어라 너 아름다운 세상아!

Ⅱ-11 고발3)

1951년

수용소의 우리 모두는 당신들을 고발한다.

당신들은 불법으로 우리의 재산을 모두 빼앗았고 스스로는 법의 수호자라 말하면서 미움 가득 찬 마음으로 우리의 권리를 앗아갔다. 우리를 속도 없는 노예처럼 업신여겼으며, 아무 제한도 없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우리를 깊은 비애 속으로 밀어 넣었다.

우리는 당신들을 고발한다.

수용소의 우리 남자들은 고발한다. 우리를 힘에 부치도록 부리면서 고약한 노예보다 더 험하게 학대했다 녹초가 되도록 부려 먹고서도 이제는 뼛골마저 빼내고 있다 우리 덕분에 모두가 살찌고 이제 수고의 열매조차 약탈하고 있다.

우리는 당신들을 고발한다.

³⁾ 은총의 빛을 따라 - 118쪽<16. 수용소내의 바느질 방>에서 인용되었음.(최 명화 신부 의 번역본)

유약한 부녀자 우리는 고발한다. 남자들도 하기 어려운 일을 우에게 시키고 익숙하지 못한 손에 피가 흐르니 우리의 실수를 심술궂게 비웃었고 우리의 비애를 조롱할 뿐이었다. 당신들은 길러 준 어머니도 부양해 보지 못했으며 여자에 대한 존경심도 배우지 못했던가?

우리는 당신들을 고발한다.

흰 머리의 늙은 우리는 고발한다. 피로했을 땐 아껴 줄줄 알았건만 예순과 일흔 고개를 넘어선 우리를 조금도 아껴주지 않았고 자비심을 몰랐다 가련한 노인들을 매일 노동으로 혹사 시켰다 떨리는 손과 무릎으로 우리는 저항 없는 짐승처럼 일해야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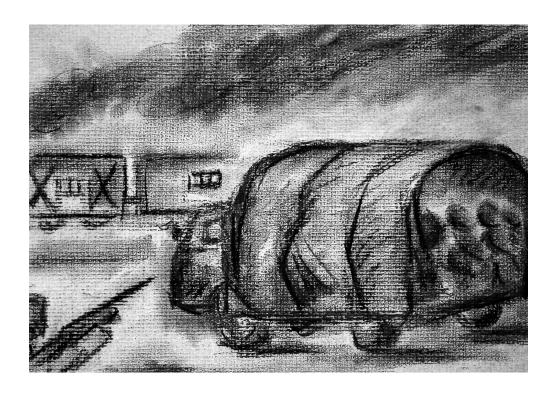
우리는 당신들을 고발한다.

병들고 쇠약한 우리는 고발한다. 당신들은 우리를 농장으로 내몰면서 재촉했다 우리의 눈물이 논밭을 적시었건만 한 번도 애통함을 믿어주지 않았고 우리의 노고에 고통을 덧붙였다 보잘 것 없는 음식조차 주기를 싫어했으니 병든 이는 설 자리가 없었다.

우리는 당신들을 고발한다.

수용소에서 죽은 우리들은 고발한다. 당신들은 쉽게 우리를 살릴 수도 있었건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지 않았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우리를 학대하며 보고만 있었고 우리의 죽음을 옴 앓다 죽는 개처럼 그냥 버려두었다. 우리를 인간 이하로 대하였으니 말 없는 우리 죽은 이들은 당신들은 고발한다.

우리는 당신들을 고발한다.



한밤에 압송

Ⅱ-12 카이사르에게 인사

1951년

우리를 위한 재판 과정은 없었다 그냥 어두운 밤에 실려가 판결을 내린 적도 없이 엄격한 금고禁錮에 넘기고 종살이하는 감옥으로 쳐 넣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누가 아는가? 하지만 잔인한 결판은 내려졌다

공산당들은 목적하는 바가 있었다 그들은 우리 모두를 죽게 하고 싶었으며 우리의 거룩한 영예를 바라지 않았다 피 흘리는 순교도 원하지 않고 서서히 죽어가게 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목표가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 수도가족은 이미 너무나도 많이 죽어갔다 삼년 안에 열일곱 명이 희생되었으니…… 굶주림과 참혹한 곤궁으로 천천히 죽어간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던 이들인데…… 우리 모두는 죽게 되어있다 딱딱한 사슬의 압력은 짧은 시간에 우리를 죽게 하기에 내 차례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 형제여! 내 차례인가? 아니면 그대의 차례인가? 우리들은 더 이상 구원의 길이 없다.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이마에 표를 하는데 우리는 떨면서 그것을 보고 있다 얼굴은 부어서 일그러지고 부은 다리는 너무나 무겁다

가엾은 그는 힘겹게 다리를 끌로 가는구나! 또 하나의 생명이 사라지고 있다.

우리의 몫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하지만 사랑은 운명을 큰 것으로 바꾸기에 가장 쓰디 쓴 것이라도 달게 할 수 있다 우리는 겸허하게 죽음을 기다린다

죽음으로 축성된 이들이 주님께 인사드리오니 "주님! 저희의 희생 제물을 받으소서!"

Ⅱ-13 만주에서 한국인 포로들과 함께

1951년 1월

짧은 날들을 함께 한 길동무들! 긴 시간을 위한 운명의 동료들 그대들을 추방한 나라의 자녀들! 우리 함께 고통을 나누며 사랑으로 감싸야지!

당신들도 우리처럼 북한에서 쫓겨난 낯선 땅에 와 있구려. 저 압록강 강변 어린 곳에서 당신들도 우리들 같이 들짐승처럼 쫓겨났네요.

나는 보았다.
'흰 두루마기 입은 사람이
가다가 자주 넘어지고 고꾸라지는 것을…….
그러나 그들은 죽어가는 이를 포악한 책망으로 다시 일으켰다.

그러다가 그는

낯선 땅 낯선 사람으로

죽어가면서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그를 괴롭힌 이들은 무정하게 계속 갔다
그는 스스로의 무덤을
길가에서 찾았나보다.

죽어가는 두 명의 가런한 포로들을 우리와 함께 바쁘게 중국 들판으로 끌로 가더니 커다란 옥수수더미 아래 그들의 들것을 놓는다.

긴 시간 괴로워하는 신음 소리가 들리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며 그들은 고향을 떠나 멀리서 외롭게 죽는다. 그들의 조국은 그들에게 무덤도 주지 않으려는지?

더럽고 작은 개천이 들녘의 가장자리로 천천히 흐르고 있는데 그 쪽 어둠 속에 시신을 그대로 던져버린다 우리는 서글픈 마음으로 바라본다.

\coprod

재연되는 옥사덕 수용소의 삶

<만주의 피란길에서 돌아와 수용소에 재수감> 1951.~1953.

Ⅲ-1 귀향 (죽어가는 이를 위해서)

1951년 11월

나는 이제 집으로 간다. 예부터 귀담아 들었던 아름다운 곡을 선명히 들어며 저편 하느님 도시 황금 성곽 철탑이 빛나고 있음을 멀리서도 이미 보고 있노라.

나는 이제 집으로 간다. 길 잃고 울며 찾아 헤매는 아이처럼 사랑하는 아버지의 집이 갑자기 눈앞에 있음을 놀라 바라보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지!

나는 이제 나의 하느님이시며 아버지이신 주님께로 돌아가노니 그분의 인자하신 마음이 나를 위로하시며 반겨주시리라 모욕과 책망은 지나갔고 귀양살이도 사라졌다 모든 고통도 아픔도 다 지나갔다.

나는 이제 나를 사랑하던 벗들과 형제들에게로 돌아가노니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그분을 외면했을 때부터다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께 내 삶을 봉헌했고 영원한 사랑으로 그분과 하나되리라. 나는 이제 나를 가장 오래 기다렸고 내가 가장 사랑하던 어머니께 돌아간다. 그리고 나는 나보다 그곳으로 앞서 간 이들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다시 보게 되리라.

나는 지금 집으로 간다. 내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신 오,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말씀이여! 성탄절 종이 울리듯 오! 아버지. 저의 귀향이 빛나고 평화롭게 하소서.

Ⅲ-2 고통

1951년

고통은 어두운 장막과 같이 그 안에 그분의 장엄한 조각에 의해 화려한 작품이 이루어진다.

고통은 잠겨 진 정원과 같이 그 안에 창백한 꽃들이 피어 파랗고 검은 나비들이 꽃들 위를 조용히 날아다닌다.

고통은 푸른 산정의 호수와 같이 수정처럼 밝고 맑게 너에게 '참'이 아닌 것과 '진실'이 아닌 것은 사정없이 반영된다.

다스리지 못하는 고통은 아산의 시내와 같고 둘레의 땅을 황페케 한다. 극심한 고통은 질서가 없고 영혼과 육신을 곧 파멸 시킨다.

고통이여!

나는 너에게 내 영혼을 열어 보이노니 와서 내 안에서 조용히 일 해다오.

주님!

제가 고통을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그 힘겨움은 저를 주님 닮도록 하나이다.

Ⅲ-3 고통으로 가득 한 대림절

1951년

마리아는 기다럼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며 모든 생각은 하느님, 곧 그 분의 아드님이라고 부르게 될 주님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두 천사가 옆에서 보좌하고 다니면서 앞으로 있을 일을 보여 주는데 하나는 빛나는 햇빛 같고 다른 하나는 슬픔이 어둡게 감싼다.

처음의 천사는 사람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분의 아들을 보여주는데 그분의 눈은 빛이 나고 황금색 곱슬머리는 죽음을 이긴 분이시다.

"그 분은 우리를 위해 피 땀을 흘리셨다."고 두 번째 천사는 신중히 일러준다. 성모님은 그 분이 고통으로 찌들고 피 범벅으로 변모된 얼굴 모습을 보신다. 그리고 천사는 성모님께 임금님이 되신 빛나는 아드님을 보여드린다. 그 얼굴은 신비스런 아름다움과 주권, 기품과 위엄으로 가득하시다.

'그 분은 우리를 위해 매 맞으신 분' 성모님은 밧줄에 동여매인 사랑하는 아드님을 보시는데 아드님의 묶인 몸은 형리들에게 심한 채찍질을 당하셨다.

그러나 그 분은 죽음과 생명을 주재하시는 신의 화려함으로 둘러싸인 솔로몬의 어좌 위에 앉으신 그 분을 보신다.

'가시관을 쓰신 분' 성모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성모님은 그 분이 가시관을 쓴 고통의 사람으로 치욕 당하시는 것을 보신다.

그러나 그 분은 구세주 임금이시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며 축복이신 분 흰 암나귀를 타시고 백성들이 그 분을 크게 환호하며 맞이한다. '그 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 밑에서 흔들거리는 그 분을 보아라. 잔인한 백성은 그 분을 발길로 차고 증오는 경계를 모르는구나!

그럴 수 없다 예언자는 오래 전에 환히 내다보았다. 해돋이에서부터 해 지는데 까지 그 분의 왕국은 넓혀 가리라고! '그 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성모 마리아는 떠시며 바라보신다.

그 분은 오직 그 분의 백성을 구하시려고 죽임을 당하셨다.

성모님은 어둠속에 홀로이시다 금빛 줄기는 더 이상 빛나지 않는다. 천사는 날개로 성모님을 감싸고 고요히 함께 울고 있다.

Ⅲ-4 다시는 안 된다

1951년

어미니,

다시는 어머니의 얼굴을 뵈올 수 없습니다. 밝고 친절하고 인자하고 부드러운 그 얼굴을

아버지,

성실하고 독일적 남성미 넘치는 아버지의 고상한 모습을 다시는 뵈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나에게 그토록 잘 해 주었지만 다시는 너희를 볼 수 없게 되었구나. 우리를 이토록 긴 세월 사랑스럽게 연ㄴ결시킨 끈을 다시 맺을 수 없게 되었구나!

사랑스럽게 가까웠던 벗들아, 언제나 나와 함께 느끼고 함께 생각하던 벗들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구나!

외롭고 낯설고 공포와 증오 속에 나의 삶이 너무나 힘겹구나!

고향이여!

보고 싶은 너를 다시는 볼 수 없고 그 산 숲 호수들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구나! 먼 옛날부터 이어온 흘러간 노래들을 다시는 들을 수 없게 되었구나!

하느님 모상을 어린이들 영혼처럼 고상하게 대리석으로 조각하는 일을 다시는 할 수 없게 되었구나!

구세주의 성심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이제 목마른 이들에게 다시는 줄 수 없게 되었구나!

내 영혼의 표현이요 기쁨이던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을 다시는 칠 수 없게 되었구나!

'다시는 안 된다.' 마지막 희망은 사라지고 '다시는 아니다.' 악마의 조롱처럼 들린다.

'다시는 안 된다.'라는 말은 말 중에 가장 무서운 말이고 영원의 무게에 짓눌리게 하여 모든 사물의 덧없음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시간의 참된 가치를 가르친다.

Ⅲ-5 초가을

1952년 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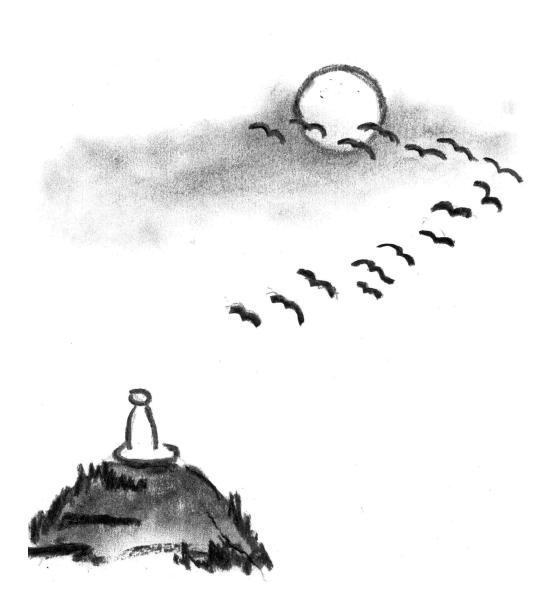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산 둘레에 여름 햇빛이 황금빛으로 빛났는데 습기 찬 안개가 모든 것을 감싸고 이제는 서늘해졌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밭의 노랗고 큰 꽃들이 작은 태양처럼 반짝였는데 이제는 시들고 사그라져 잎마저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밝고 붉은 과꽃들이 수 백 개나 피어 있었는데 이제는 비 때문에 사그라졌고 모든 꽃들은 시들어 져버렸다.

지금까지만 해도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으며 활기차고 용기와 희망이 가득차 있었는데 이제는 그 모두가 지쳐버렸다.

죽음아 나의 가을아 내게 곧 오려는가?



남쪽으로 가자며...

Ⅲ-6 가을의 그리움

1952년 가을

저 창공의 갈고리를 보아라 기러기들이 창공을 가르며 남쪽으로 바삐 날아가고 있다 그들은 꺽꺽 소리로 나를 부른다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함께 가자고!

되늦은 제비가 휙 지나간다 그들의 습관대로 내게 아주 가깝게 날며 작은 마음이 그들을 남쪽으로 당기고 사랑스레 유연하게 지저귄다 함께 가자 함께 가자고!

저 멀리 산자락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길인지 모르건만 일찍이 늦게 마치 나를 부르는 듯하다 함께 가자 함께 가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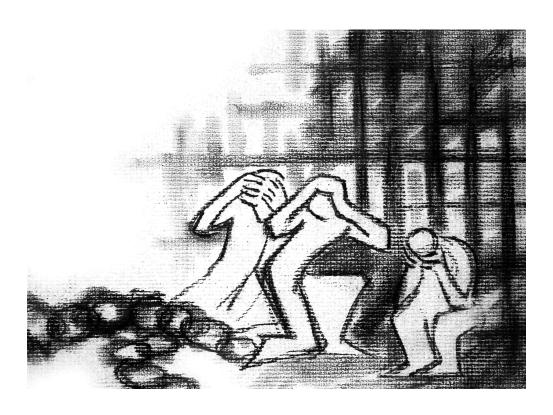
저 아래 깊은 계곡엔 시냇물이 흐르며 은빛 테는 유혹하듯 반짝인다. 나는 그 물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반짝임과 빛남은 내게 손짓하는듯하다 함께 가자 함꼐 가자 함께 가자고! 원시림으로부터 불어오는 폭풍우소리는 마치 웅장한 합창과 같이 수천의 소리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 내 귀에 마치 명령처럼 들린다. 함께 가자 함께 가지 함께 가자고!

너희는 왜 나를 유혹하고 밀어내면서 부르는가? 내 영혼이 얼마나 뜨겁게 그리워하는지 마음속에 뜨겁게 타는 그 불을 왜 연이어 지피고 있는가!

그러나 나는 아직 갇혀 있으며 멍에를 짊어지고 있단다. 나는 아직 남의 권세에 억눌려 있지만 언젠가는 나도 자유롭게 되겠지! 행복한 그 시간이여, 어서 와다오!

IV

순교자를 기리며



사슬이 손과 발에...

Ⅳ-1 광산에서의 노동

1950년 12월 15일

형제들은 야생동물과 맞서 싸웠다 그들의 피는 대 경기장의 모래에 물들었다 그대의 죽음은 끔찍했으나 승리는 영광스러웠다 순교자들의 월계관이 그들의 이마를 꾸몄기에…….

그러나 우리는 산중에서 노동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다. 산채로 묻힌 얼마나 끔찍한 죽음인가! 순교의 빛과 광채가 없는 배고픔, 더러움, 비참과 궁핍의 죽음이다.

우리는 깊은 산 속에서 땅속 깊이 돌을 파내고 무너뜨리고 깬다. 희미하게 깜박거리는 횃불아래서 멋진 대리석을 끌로 파고 망치로 친다.

옷은 해져 알몸이 드러나고 때 묻고 피와 땀으로 젖어있다 손과 발은 쇠사슬에 묶이고 박자 맞추어 일하느라 고요히 바스락 소리를 낸다. 등이 얼마나 아프고 몸은 얼마나 피로한지! 그러나 아무도 우리에게 쉬라고 하지 않는구나. 우리를 재촉하는 이들은 마구 화를 내며 내몰고 채찍을 휘둘러 '탁'하고 소리 내면서 우리 위로 날린다.

저 위 들녘엔 곡식이 무르익고 오렌지 숲에 스산한 바람이 인다.'바람은 화원을 지나가면서 바다에서 육지로 휩쓸어 간다.

그 아래에는 뙤약볕이 답답하게 내리쬐고 때와 먼지가 섞이며 썩는 냄새가 악취를 내뿜는다. 숨 쉬기도 너무나 힘겹구나! 우리의 가슴은 어이 없이 허공을 향해 부르짖는다.

"그리스도여! 오 그리스도여! 저희와 함께 하소서! 저희들에게 용기와 힘을 잃지 않도록 단호한 마음과 강인함을 주소서!"라고…….

이 아래는 어둡고 끝없는 밤입니다 저희들은 벽을 따라서 기어가며 더듬거립니다.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고 이 어두움은 저희의 마음을 얼마나 불안하게 하는지요! 저 위에는 황금색 태양빛 아래 반짝이는 색깔들이 광채로 빛납니다. 오, 저의 눈이 단 한번이라도 또다시 이런 빛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 그리스도님!
그리스도님이시여!
저희와 함께 머무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태양이시오
빛이 되어주소서
주님의 빛을 저희들 마음 속에 비춰주시어
저희 영혼을
어둡게 버려두지 마시옵소서.

이 순간들이 지나면 언젠가 저희도 한 번은 주님의 빛을 보게 되겠지요! 또한 저희는 주님과 함께 끼니를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며 지상의 고통은 한순간의 꿈으로 사라지겠지요!

성인들의 합창이 울리는 푸른 풀밭으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착한 목자이신 주 그리스도님 오, 그리스도님! 주 예수님! 어서 빨리 오소서!

Ⅳ-2 로마의 순교자들

보라!

연한 꽃 같은 로마의 순교자들! 아녜스와 타치아노는 얼마나 용감했던가? 방그라시오와 아직 어린 소년들 그들이 무리지어 심판대로 가지 않았던가?

노인들 부인들 어린이와 어머니들 진지하게 생각하는 장정들이 모두 예사롭지 않은 눈빛으로 기꺼이 그들의 삶을 희생했노라.

아! 그들은 채찍의 고통을 알면서도 유혹에 떨어질까 두려워했다 잔악무도한 죽음의 공포가 그들의 가엾은 마음에 고통을 주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사랑의 탈혼 중에
기꺼이 피 흐르는 죽음을 향해갔다
그들의 고운영혼이
"그리스도여 사랑하올 님이시여
주님만을 위하여!"
라고 노래했다.

그들은
사람됨의 약함을
영웅적으로 이겨냈으니
그들의 영광의 관은 화려하고
하느님 앞에
그들의 죽음은 값지면
사랑의 대가는 복 되도다.

IV-3 한국의 순교자들

로마 문화의 고목나무에서 피어난 훌륭한 꽃들과 같이 젊은 교회의 거룩한 순교자들 진홍색 하얗게 빛나는 금빛 배경!

이천년의 변모된 흐름 속에 발라드에서 울려나는 진지하고도 모진 소리처럼 그리고는 사랑스럽고 달콤함으로 가득 찬 소리 같이 한국의 순교자들은 알려지지 않았었다.

강한 이웃으로부터 침탈당해 억압되었고 권세에 눌리고 경제적 약탈을 당하면서 영웅적이니 자손들이 얼마나 태어난지도 모르고 어떠한 피 흐름이 땅을 붉게 물들였는지도 잊고 있었다 극동의 작고 연약한 이 민족을 뉘 알소냐? 봄 동산 야생 진달래처럼
아무도 그들에 대하여 모르는 채
신앙을 위해 목숨 바친 수만 명 순교자들!
하니잠 한국 교회는
그들의 이름조차 잘 모른다.
그런데도 영웅적으로 이름답게 죽어간
로마의 순교자들 못지않다.

말씀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부족했지만
믿음은 흔들림이 없었고
희망은 바위처럼 든든했으며
하느님을 향한 사랑은 불타올라
매질의 잔임함을 겪으며
험한 고문의 아픔을 참았다.

그들은
그들의 거룩한 순교자들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으면서도
믿음 때문에 고통을 당했으며
믿으면 죽게 되는 줄 알았었건만 영웅적으로 초연히

목숨을 바쳤다.

그리스도를 위한 깊은 사랑이 그들 안에 살아 있었고 같은 영혼의 크기로 인도 되었다. 그들의 명성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당히 가장 큰 성인반열에 들어갔을 것이다. 한국의 순교자들이여! 참으로 위대한 영웅적인 모습이 단순함을 노래하는 옛 민요를 닮았구려.

그처럼 단순하고도 감동적으로 죽어갔노라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하며 고귀한 생명을 희생하셨는가?

"한국의 순교자들이여!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경배 드리오니 그분을 위하여 흘린 당신들의 거룩한 피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씨앗이 되고 우리도 같은 사랑으로 그리스도께 헌신 할 수 있게 빌어주소서!"

IV-4 현대의 순교자들

1952년 11월

"어머니! 아버지는 언제 오셔요?" 오시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얘야! 그들은 아버지를 총살시켰단다. 다시는 돌아오실 수 없단다."

그처럼 오랫동안 멀리 있던 내 형제를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단 말인가?

남편과 아들, 여인은 둘 다 아직 젊은 그들을 잃었다 그들은 하느님을 믿었기에 모두 영웅적으로 죽임을 당해 멀리 시베리아 추운 북쪽에 그들의 시신은 눈으로 덮여 있다.

"어머니! 아, 저는 무척 배가 고파요 빵 한 조각만 주세요," 어린 딸 <안자>는 빵을 구걸한다. "<안자>야 우리는 어제 마지막 것을 먹었으니 지금은 통이 비어 있구나!" "어머니 동생이 울고 있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슬프다 너희를 도울 수 없으니, 내 마음은 찢어질 것 같구나!" "어머니, 저는 추워서 떨고 있어요. 아 정말 혹독한 추위입니다." <안자>와 어린 남동생은 추위에 떨다가 아마도 곧 얼어 죽을 것이다 "땔감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가? 아! 숲으로 가는 길은 멀기만 하구나 아버지의 외투는 우리를 따뜻하게 할 것이니 그것을 덮고 있자."

그들에게 딸감 빵 옷 아무것도 없다 먹고 살기위해 지니고 있던 물건들은 모조리 다 팔았다 저들은 피나도록 우리를 미워하고 구걸도 못하게 한다. 우리는 당원도 아니기에 그들에게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는다. 그들은 우리를 기아와 추위에 희생시키고 있다.

인자하신 하느님, 저희와 함께 하소서!

IV-5 각오

1952년 11월

나는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언제쯤 나의 피를 쏟게 될지
옥중에서 서서히 죽어 갈지
형장의 총알이 내 생을 마치게 할지
사나운 미음이 나를 잔인하게 없애게 될지
들짐승처럼 쫓겨
모래 위에서
고독하게 피를 쏟으며 죽어 갈지
전쟁 중에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될지
추방 중이거나
아니면
고요한 수녀원 담장 안에서
평화롭게 수녀들과 함께 갇혀 있다가

나는 모른다 나의 운명은 하느님 아버지 손 안에 있기에 내 삶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알고 계신다. 오르간의 풍부하고 웅장한 소리처럼 되든지 바람으로 사라지는 현악의 부드러운 소리처럼 들리든지....... 주님!

제가 아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운명을 위대하고 아름답게 하며

가장 어려운 것도 참을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희생은

주님 마음에 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순교 정신을 주시어

주님의 거룩한 뜻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갇혀 있든지 자유의 몸이 되든지

저를 주님께 바치고

피 흘림이든지

피 흘림이 없는 죽음이든지…….

불타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게 하소서!

V

본국 송환과 여운

1953.11.~1954.1.

V-1 해방

1953년

봄에는 꽃이 피고 내 안에는 희망이 솟으려한다 처음엔 수줍은 듯 연약하고 살며시 내 마음을 밝히고 설레게 하며 하루 또 하루를 더 해 가는구나.

여름 산에는 온통 꽃으로 뒤덮여 있다 다만 내 희망이 엷어져 갈 뿐 희망을 아프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은 가을이고 바람이 서늘하다 꽃들은 져버렸고 내 마음은 지쳤으며 희망은 이제 사라진 것이다.

V-2 홀로

195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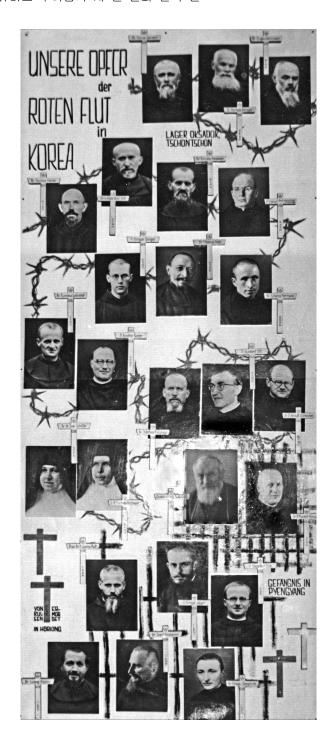
밤이다! 칠흙같이 캄캄하고 어둡기만 한데 나는 혼자이고 두렵구나! 이웃 사람과의 거리는 일만 마일처럼 먼 것 같다.

도무지 그곳으로 닿을 수가 없어 파을 뻗어 보지만 헛일이구나! 나의 심정은 그리움의 외침 아무런 답이 돌아오지 않는다.

이 밤에
나는 손을 뻗어본다
주님! 제 손을 잡고 싶지 않으십니까?
마치 아버지의 인자하신 손처럼
믿고 의지하며
주님 손 안에
제 손을 넣을 수 있게 하소서.

저의 외로운 외침은 주님을 부르는 일이 되게 하시고 비록 응답이 없어도 주님께서 제 곁에 가까이 계심을 알게 하소서.

그러면 저는 주님과 함께 홀로 외로울 수 있을 것이옵니다.



옥사덕에서 숨진 수도자

Ⅴ-3 옥사덕에서 숨진 수도자

우리는,

우리 가운데 앓는 이들을 사랑 가득한 정성으로 성심껏 돌보았다.

우리는,

늘 우리에게 가능한 것만 할 수 있었기에 환자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 힘겨웠다.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 없음이 고통스러웠지만 그들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평화스럽게 우리 곁을 떠났다,

우리는.

기도하고 위령노래를 부르면서 산골짜기 끝자락 축성된 자리에 그들을 안장했다.

무덤들이

위에서부터 이어서 인사한다 '나의 무덤도 저기에 있게 되려나?'

V-4 화를 입을 것이다. (귀향길에서)

1954년 1월

그들은 기아에 허덕이며 얼마 안되는 빵을 얻으려고 헛수고만 하는데 배부른 나는 화를 입을 것이다.

그들은 다 해진 옷을 입고 헐벗고 더러운 때에 젖어 궁핍해 있는데 깨끗한 정장을 한 나는 화를 입을 것이다.

그들은
오갈 데 없이 비에 젖고
바람과 추위에 떨며
아늑한 공간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아름답고 따스한 방 안에
살고 있는 나는
화를 입을 것이다.

그들은

들짐승처럼 쫓기고 몰리며 감옥에서 애 태우고 있건만 아무도 그들의 자유를 향한 목마름을 식혀주는 이 없는데 자유로이 안일하게 사는 나는 화를 입을 것이다.

그들은 가난 억압 위험에 처한 삶의 그늘에 있는데 그들을 잊었더라면 나의 삶은 죽음보다 더 심각한 것이며 화를 입을 것이다.